

담대하라.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16:33 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 복음 16 장 33 절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6 :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극한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캄캄한 밤중에 파도의 격랑위에 몸을 실고, 극도의 불안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한 상황에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공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들으면, “담대하라니요? 그게 무슨 해결이 됩니까?” 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주님이 제시하시는 사건 해결의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천동지할 상황에서도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 마음의 평안이 흔들림이 없이 고요한 것,

그래서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왕이 되어 그 사람의 전인격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고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극한 상황의 해결책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이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삶을 살아 가는 자원이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가면서 적군들로 포위되어 있는 산위에서 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 :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데도다 (셀라)

환경은 찰흙같이 어둡지만 환경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엘리사 시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몰려와 엘리사가 있던 도단을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종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둘러쌌습니다. 종자는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소리를 질러습니다.

“아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때 엘리사는

“저들과 함께 한자 보다 우리와 함께 한자가 많다” 고 하면서 기도하니, 하늘의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린 것이 보였습니다(왕하 6:16).

열왕기하 6 : 14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열왕기하 6 : 15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찌기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열왕기하 6 : 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열왕기하 6 : 17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우리는 문제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한 가운데 있지만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엔 권능의 오른 손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끝없는 평강이 지속됩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속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더 예를 찾아 보십시오.

시 23 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죽일 듯 달려드는데, 다윗은 그 환경을 바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칫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는 하나님을 바로 봅니다.

이렇게 열린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담대함이 넘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 나오는 담대함이 그 마음을 휘어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 예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은 예수님이,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 :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일위 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에 인성이 완전히 굴복하는 이성일위, Hypostatic Union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라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누리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것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둘째 사람의 인격을 다스릴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못밖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동하지 않는 나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전인격이 성령의 통치에 굴복함으로 당신 안에 가지셨습니다. 바로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의 인격을 이룬 것, 이성일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곤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파도 위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호랑이 등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죽어도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에 살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됩니다. 피할 바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세 반석이 됩니다. 원수 병마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료가 나타납니다. 모든 필요를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전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시 91 편을 찾아 보십시오.

시편 91 :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 : 2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 : 3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울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구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전인격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안에서 이루어진 자’ 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91 : 4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시편 91 : 5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시편 91 : 6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 반석이 됩니다. 원수 병마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료가 나타납니다. 모든 필요를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납니다.

시편 91 : 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시편 91 :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편 91 : 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 : 12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낱알 환경이 극한 상황으로 달려가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합니다.

증시가 올라가는 것, 내려 가는 것 나와는 상관없다.

경제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속사람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전날 밤에 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당신의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에 근거하여 담대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은 내가 파도를 이겼다. 불황을 이겼다. 호랑이를 이겼다 하는 말보다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말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무력하게 힘없이 굴복하는지 아십니까?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가장 큰 세력입니다. 사망은 죄를 사용하여, 질병을 사용하여, 환경을 사용하여, 근심과 불안을 사용하여, 공포를 사용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힘없이 넘어뜨립니다. 피조물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피조 세계 안에는 어느 누구도 사망의 세력을 극복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가장 큰 세력입니다.

이 사망을 극복한다는 우주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우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됩니다.

30 세에 전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도 죽음 앞에 굴복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죽음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굴복시키면 그 사람은 만왕의 왕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우주를 제패하셨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주를 제패한 왕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 :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그의 신성의 입증일 뿐 아니라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왕의 깃발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망의 세력을 제압하셨습니까?

그것은 영생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피조물이 가진 그런 제한된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가진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인 사망을 극복하려고 영생을 가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것 부터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 :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총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극복하는 영생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 :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도 아직 일어 나지 않았는데 벌써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6 :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도 아직 일어 나지 않았는데 벌써 사망이 극복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벌써,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문제가 해결된 후 승리의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을주시기 전에 “담대하라” 하시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피조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인 사망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극복되었다.

너희도 내 안에서 사망을 극복한 자가 되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대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므로 성령 안에서 영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너희 안에 있다. 담대하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음을 극복한 자가 됩니다.

피조 세계 안에서가장 큰 세력인 사망을 극복한 자가 됩니다.

이제 영생을 가진 자를 건드릴 존재가 없습니다.

사망은 그 어떤 것을 도구로 하며 영생을 가진 자를 넘어 쓰릴 수 없다. 담대하라!

금융 불안이나, 환율의 급등이나, 질병이나 무엇에 의한 공포 불안이든지 상관없다. 담대하라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담대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우주 안에 그 어떤 능력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선다!

이렇게 나갈 때 모든 불안 공포는 떠나가고,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와같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이 능력이 자신의 가슴속에서 넘실댁니다.

이 뱃장이 있는 사람은 호랑이 등위에 올라 앉아 호랑이를 다스립니다. 파도위에 올라 앉아 파도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확신으로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호랑이에 찢기고, 파도에 쓸리고 맙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는 명령은 시급한 명령입니다.

시급히 마음을 바꿔라. 영생의 확신이 넘치게 하여라.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하기 싫어 않습니까? 안되니까 안하는 거지요.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예수님을 한 배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물속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만 사로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빠져갑니다”

파도에 가라 앉던 베드로 처럼 손을 내어 미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이 영생이 자신에게 있음이 확신 가운데 자신의 가슴 속에서 넘치면, 불안 공포, 염려, 근심은 가루가 되어 날라 갑니다. 올테면 와보라 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깨가 쭉 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담대하라 내사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상황보다, 그 사람의 정신적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호랑이 등위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벌벌 떨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외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채만한 공포가 몰아쳐도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면 때가 되면 파도는 가라 앉고 맙니다.

여기서 “담대하라” 는 말은 결단을 강요하는 긴박한 명령입니다. 감정의 상태가 담대한 상태로 돌입하라는 긴급한 명령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네 생명을 주께 내려 놓고 주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명령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파도가 삼켜 버리니 긴급히 마음을 바꿔라,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으면 호랑이 밥이 되니 긴급히 바로 서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할 영적 정신적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급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3 : 11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담대하라는 말은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담대하라”

극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마음이 바로 담대한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함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히 서는 것을 보면 그 때 내가 은혜에 은혜를 더 주어 더 큰 담대함과 능력을 베푸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워터 펌프를 아실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물을 끌어 올리려면 먼저 물을 조금 부어 주어야만 진공이 생겨 아무리 낮은 곳에서 부더라도 물을 끌어 올립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담대함을 갖는 것은 물을 조금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조금 부어주지 않으면 진공이 생기지 않아 물이 올라 오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순종으로 담대함을 먼저 가지려 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편에서 먼저 “담대함” 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